

“책도 시대 흐름에 맞게 진화해야지요”

금창연 출판문화학회 회장(동원대학 광고편집과 학과장)은 요즘 25시간이 부족하다.

학회장에 학교 학과장, 학보 주간교수 등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문화학회는 2008년 12월 금 회장의 각고의 노력으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사단법인 출범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금 회장은 할 일이 더욱 많아졌다.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의 상담이 줄을 잇고 강의와 학보 발간 때문에 인터뷰가 어렵다는

금 교수를 4월의 금요일 늦은 시간 동원대학 캠퍼스에서 만났다.

금창연

사단법인 출판문화학회 회장

2008년 12월에 출판문화학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요?

제가 작년 정기총회 때 출판문화학회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회원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단체로 운영되어 오던 학회를 법인단체로 만드는 것과 '출판'이라는 일을 세상에 많이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출판, 잡지, 인쇄가 세상에 왜 필요한지를 알리고 식어가고 있는 출판, 잡지, 인쇄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학문적 열정을 되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출판'이라는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끝없는 연구 활동과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함께 출판 활동과 의식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법적인 보호 아래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싶어 사단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 학회를 설립하시고 항상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전영표 명예회장의 후원과 동원대학 부길만 전임 회장님, 신구대학 이창경 교수님, 오성상 교수님 그리고 미래엔그룹 윤광원 상무님과 국민문화재단의 송인근 감사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더러는 편안하게 학회를 운영하지 왜 힘들게 법인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만류도 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신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단법인이란 공적 단체를 통해 더 많은 일을 만들고, 그 일들이 학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출판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 2월 개최한 출판문화학회 학술포럼은 진지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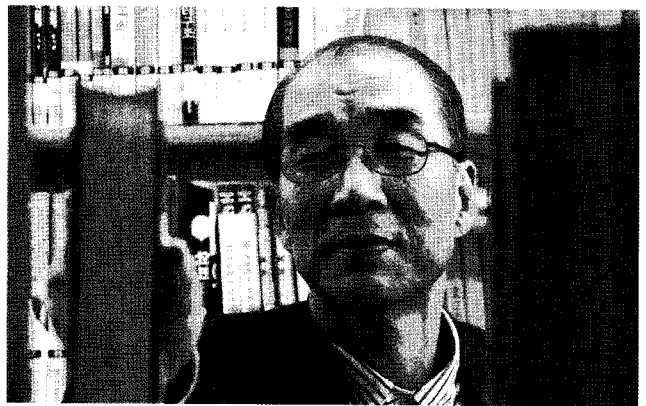
지난 2월에 있었던 학술포럼은 출판문화학회가 설립되고 18번째 행사였습니다. <한글의 활자 문화와 정보의 사회와 출판·잡지 산업 환경>이라는 대주제 아래 일곱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학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날이 작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18회 정기총회를 지난 2월에 하였으니 회원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6편의 논문만 발표되었었는데, 이번에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회원 중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오세종 회원님이 지난 8월에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우리 학회의 또 하나의 경사였습니다.

이날 학술포럼은 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되면서 개최된 첫 행사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출판, 인쇄 관련 종사자들의 결집력 강화를 통해 학문 교류와 정보 공유, 기술 보급 등으로 국내의 출판문화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 학회 창립 이래 학술지 <출판잡지연구>가 올해로 1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1990년 8월입니다. 신구전문대학(현재 신구대학) 출판과 전영표 교수님께서 인쇄와 출판의 역사를 살피면서 오늘의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평가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의 교수와 함께 출판문화학회를 설립하면서 초대회장을 맡게 됩니다. 전영표 회장님은 <출판잡지연구> 창간사에 "회원 동학들의 연구 토론의 장으로 <출판잡지연구>를 창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출판잡지연구>는 출판, 잡지, 인쇄 전반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학문적 이론의 체계화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한국의 인쇄 출판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출판·잡지·인쇄의 만남>을 통해 학문적 이론 정립과 업계 발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출판잡지연구>의 발행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이 한 호 한 호마다 배어 있었고, 통권 16호가 발행되기까지 수많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학회 회원들의 뜨거운 학문적 열정이 지금까지 한 호도 거르지 않고 발행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출판문화학회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먼저 교과서 편찬 및 발행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을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07학년도 교과용 도서 목록>에 의하면 국정 도서와 검정 도서를 합한 2008년도 교과서 발행 부수는 약 1억 5천6백만 부입니다. 이 부수는 같은 해 만화책을 포함한 일반도서의 신간 발행 부수 약 1억 1천3백만 부를 훨씬 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이런 방대한 출판물인 교과서의 기획, 편집, 제작, 공급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학계, 교과서 관련 공무원, 발행인, 출판 편집인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의 교과서 발전에 저희 학회가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출판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동원대학, 신구대학, 서일대학, 계원예술디자인대학과 연계하여 '출판, 편집, 인쇄' 라는 일이 세상에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알리고 가슴에 심어 줄 수 있는 이벤트를 연중으로 열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미래의 출판, 편집, 인쇄인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뜻있는 교수님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All in Design” 출판계 현실 안타까워

우리 출판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책을 사랑하고 책 만드는 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정도 짚어보면 요즘 너무 디자인만 앞세운 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All in Design' 이란 열풍 속에 책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학생들에게 책은 누가 만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디자이너가 만든다고 대답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한 번 봅시다. 책 만드는 과정인 컴퓨터 디자인은 가르쳐도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편집자의 정신과 자세를 가르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편집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디자인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뭐랄까, 주객이 전도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너무 베스트셀러 만들기에 열중하

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몇몇 출판사들은 참으로 출판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책을 만들기에 애쓰고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책을 만드는 것보다 잘 팔리는 책을 만들기에 급급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책이란 영혼과 정신의 기록입니다.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런 귀중한 매체를 만드는 편집자의 정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책을 만드는 기능인이 아닌 편집자의 정신이 살아 있는 편집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책을 기획해야 하는지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는 편집자, 출판문화의 주인공이라는 긍지를 가진 편집자가 출판계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편집자란 누군가 말했다듯이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초라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하고, 관객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일까지 책임지는 가장 매력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연출자라고 생각합니다.

출판계가 더 많은 독자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출판계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인터넷 세대, 영상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아닌 읽고 싶도록 만들면 젊은 독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세대인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그림 하나 없는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를 단숨에 읽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재미'와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미와 감동이 소프트웨어라면 하드웨어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의 전자 제품을 보십시오. 끝없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선이 달려 있던 유선 전화기가 선 없이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 역할까지 하는 핸드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책이란 매체의 진화 속도는 너무나 완만합니다.

예를 들면 1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이 달린 책, 오랫동안 읽어도 눈이 피곤하지 않은 건강 종이로 만들어진 책, 책장을 넘길 때 향기가 나는 책, 물을 쏟아도 손상이 되지 않는 책, 책을 읽다가 눈이 아플 때 잠시 이어폰을 연결하면 소리로 들려주는 책, 이런 책들이 왜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요?

고민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연구와 교육은 대학에서, 연구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출판, 편집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대학교 학부가 없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보니 책이란 물건(?)은 다른 분야보다 뒤처지고 젊은 세대들은 흥미를 잃어가고, 관심을 갖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연구를 하게 하는 일을 누군가 해야 합니다. 출판문화학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출판, 편집, 인쇄 저변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고 배출해야 이런 인력들이 하나 둘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갈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인력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 제정되더라도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빠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끼’ 발휘하는 광고 편집인 양성

동원대학 광고편집과 학과장직을 맡고 계신데, 학과의 특징과 학생들의 진로는 어떠한지요?

광고에 대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상과 비주얼 표현, 카피 제작, 광고 기획 등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공부하고 출판과 편집

디자인 전반에 대한 교육도 교과 과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끼 있고 꿈이 있는 학생들이 해마다 지원을 많이 해 지원율도 높고 학과 분위기도 아주 진취적입니다.

특히 광고편집과를 대외에 알리는 학과 홍보 잡지 <광나>는 기획성과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잡지입니다. 해마다 우리 과 학생, 교수들의 교내외 행사와 활동, 학생들의 작품을 담아 일년에 한 번 발행합니다. 올해 3호가 발행되었는데, 탄탄한 기획력과 미려한 편집 디자인으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잡지여서 학생들 스스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은 특별 활동 시간을 갖습니다. 그 주에 생일인 학생들에게 교수, 학생이 함께 생일 축하 이벤트를 열어 주고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통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또 어떤 주는 명화 감상을 하고 내용 구성과 촬영에 대한 토론회도 합니다. 유명 회사에 취업하여 우리 과를 빛내고 있는 졸업생을 초청하여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비전과 꿈을 보여 줍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우리 과는 학생, 조교, 교수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회사를 찾아 거의 취업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4년제 대학에 편입도 합니다. 올해는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부 3학년에 두 명이 편입하였습니다. 취업은 출판사, 잡지사, 일반 회사 등에 90% 이상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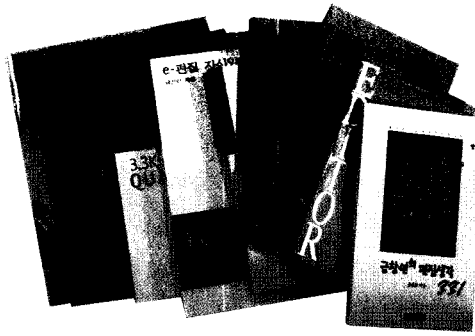
학생들에게 평소 강조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강의 중에 자주 하는 얘기는 첫째,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배우고, 배웠으면 지금 당장 활용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누구에게든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열심





그 동안 만든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소비자시대>



금 교수가 저술한 여러 저서들



동원대학 학생들의 '끼'를 담아내는 동원학보

히 공부해서 남 주자'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잔소리(?)가 심한 편입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학생들이 마치 내 자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뿐 아니라 개인의 언행이나 옷차림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애가 타서 그냥 지나치게 되지가 않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인기 교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이 찾아와서 학교 다닐 때는 제 잔소리가 지겨울 때도 있었지만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했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생각나고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계속 잔소리쟁이 교수가 되어야겠지요.

저서 <편집 레이아웃>이 90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당시에는 교보문고에서도 놀랐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전문 서적 중에서도 편집에 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최초라고 하더군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무척 많은데, 많은 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그 책을 내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책을 보면서 '편집 레이아웃을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잡지사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것을 배울 때는 모든 것이 '어깨너머로' 었습니다. 한 마디로 선배 옆에서 눈치껏 배워야 했습니다. 힘들게 현장 체험을 통해 어느 정도 실무를 익히고 대학원에서 출판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편집을 배워야 하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편집을 배울 때 가

장 궁금했던 것을 중심으로 사진과 관련된 시각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 주면서 아주 쉽게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책이 출판되자 한 달도 되지 않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많은 독자들의 전화와 편지를 받았습니다. 독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어려운 내용, 복잡한 내용을 너무 쉽게 설명하여 이 책을 보면서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해 각 일간지에서도 책을 소개하면서 기술과 노하우를 풍부한 실례와 자료로 설명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느끼고, 가슴에 와 닿는 책이라고 호평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책을 발간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나 잡지가 있습니까?

제 손을 거쳐 간 책은 다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 굳이 꼽자면 1987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현재 한국소비자원)에 근무하면서 창간했던 <소비자시대>가 생각납니다. 당시 미국에는 <Consumer Report>, 일본에는 <구라시노 테즈>, 영국에는 <Which>, 독일의 <Test> 등 소비자를 위한 잡지들이 오랜 연륜과 함께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것도 국가 기관에서 창간하는 소비자 잡지였기 때문에 주위의 기대와 염려를 한꺼번에 받다보니 부담도 컸었습니다. 아이템을 정하는 일부터 기획, 편집,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잡지 경험이 전무한 직원들과 함께 창간을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명감과 열정으로 버텨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어려움을 보상받고 남을 만큼 창간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소비자시대>로 인해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 표창을 받았고, 제14회 잡지의 날에는 한국잡지협회 회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잡지 <보물섬>을 창간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아버님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교장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저는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림 그리는 시간이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림을 좋아한다고 미대에 진학한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사신 아버님조차도 제가 미대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학생들이나 자식들에게 뭔가를 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교수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시골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나 화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지금의 교수 생활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라는 말 가장 좋아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차이를 인정하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6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비슷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단 한 사람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일대 일로 마주 설 때 외모, 학벌, 지식, 능력, 재력, 품성, 인격, 재능이 다 다르고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인정하는 데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사랑'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 속에 상대에 대한 이해, 배려, 책임감 등이 다 들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해지다 못해 식상해진 세상이지만 그래도 사랑만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동사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거창하게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 퇴직할 때까지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고, 퇴직 후에는 편집자의 정신과 자세에 대해 가르치는 <편집사관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관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교가 아니라 선배, 동료, 후배들이 모여 서로 토론하고 함께 배우는 작고 아담한 편집인들의 사랑방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편집자의 정신과 자세를 배우고 이어가는 그런 곳...

우리나라에도 <리더스다이제스트>를 창간한 편집자 드위트 웰레스, 헤밍웨이의 편집자 맥스웰 퍼킨스, 윌리엄 포크너의 편집자 삭스카밍즈, <코스모폴리탄>의 편집장 헬렌 걸리 브라운, 바이킹프레스 사의 파스칼코비치같은 세계적인 명편집자들이 배출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편집자들이 볼 수 있는 월간 잡지를 발간한다면 더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마 출판문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임남숙기자 sang@print.or.kr